■ 민주 전남도당위원장 경선 D-1

총선 대리전(?)…원내·외 불꽃 대결 주목

이낙연·국창근 후보 대의원 상대 표밭갈이 총력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류와 비주류 간 대결로 치러졌던 광주시당위원장 경선과는 달리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원내와 원외 인사들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가 차기 총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경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밭갈이 분주**=지난 13일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국창근 전 의원은 전남지역을 돌며 대의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15일 전남도의회 정례회에 맞춰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당 소속 도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계파해체와 당내 통합을 통해 전남도당을 정권탈환의 디딤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의 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라며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도당의 수석부위원장도 도의회 의장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국 전 의원도 이날 "현직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힘을 쏟아야 하고, 도당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역에서 뿌리를 두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심없는 마음으로 도민과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소중히 지키고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년 뒤 총선 대리전(?)**=지역 정가는 이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이 오는 2012년 총선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창근 전 의원의 경우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출마라는 점을 부인하고 않고 있고,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국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배경도 차기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과 지역구가 겹치는 이 전 군수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등록을 포기한 이 전 군수는 차기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경선이 사실상 '이낙연-이석형 싸움'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국 전 의원과 이 전 군수가 연대해 이낙연 의원과 맞선 것은 이번 기회에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을 꺾어야만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현역 프리미엄을 업은 이 의원도 이번 경선에서 패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두 후보 간 경선이 막바지에 더욱 가열되고 있는 이유다.

◇**판세**=전남도당위원장 경선 역시 오는 10·3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후보와의 역학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이낙연 의원은 일찌감치 손학규 전 대표와 연대감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 맞춰 손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 전 의원은 정세균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의원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데다 전남에서 손 전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의원 쪽이 유리하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대의원이 가장 많은 전남 동부권에서는 이 의원이 열세라는 분석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에 나섰던 이 전 군수가 전남 동부권 대의원들의 표심을 다져놓은 것도 그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오는 17일 오후 2시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국제워크숍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한·일 국제워크숍'이 1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광역시정보원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한국아동권리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상수 대표 "육아수당 대상 0~2세로 확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5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육아수당 대상을 0~2세 영아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아동 뿐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의 좋은 환경을 위해 차상위계층 아동 중 0~1세에게 월 10만원씩 선별 지원되는 것의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적어도 그것을 대폭 올려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80만원의 정말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라운지

문성근 야권 단일정당 100만 회원 모집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2012년 민주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한 '100만 회원 모으기'운동에 나섰다. 문씨가 벌이는 운동은 '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12년 대선에서 민주진보 정부를 만들기 위해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목표로 100만 회원을 모으는 것이다.

문씨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 '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을 만든 뒤 본격적인 회원 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문씨와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이 100만 명 모이면 단일정당이 만들어졌을 때 정당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만 국민이 모여 야 5당의 단일화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문씨는 15일 오후 6시 광주 우체국 앞을 시작으로 ▲16일과 20일 오후 6시 전남대 후문 ▲17일 오후 6시 상무역 앞 ▲18일 오후 2시, 21일 오전 9시 광천터미널 ▲19일 오후 6시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北 영·유아 지원 촉구 결의

광주시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영남 의원(민주·서구3·**사진**)이 대표 발의한 '인도적 차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은 지금 90년대 후반기와 같은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영·유아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극심한 식량난에 처해 있으므로, 군사적 긴장관계와 정치적 이해를 떠나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SSM의 광주지역 입점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성(性) 인지 예산' 도입 촉구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민주·북구2)은 15일 "인권도시 광주가 성적인 차별을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타 지자체에 앞서 '성 인지 예산'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성 인지 예산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라"며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매뉴얼을 통한 성 인지 예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정부 각 부처가 시행중이며 오는 2012년부터는 지자체 예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大洋해군' 구호 당분간 사용 안해

해군이 원양작전 지향 노력을 압축한 '대양해군'이란 구호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와 원양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1980년 말부터 대양해군이란 구호를 대내외적으로 사용해왔으며 이지스 구축함과 수송함인 독도함을 확보한 것도 이런 노력에서 비롯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해군이 내부적으로 '대양해군'과 '미래 첨단전력 건설'이란 구호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을 지켜보는 여러 시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대양해군을 구호로 계속 내세울 경우 연안 방어 능력 확충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사건 이후 해군 내부에서도 대양해군이란 구호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천안함 사건 이후 군사력 건설 방향을 대잠수함 작전과 연안에서의 북한의 기습도발, 북한의 해상 특수작전부대를 격퇴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무기를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김무성 "지역구챙기기 '콘크리트 예산' 다 깎아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 참석,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했지만 당직을 이용해 한 번도 제 지역 예산을 부탁한 일이 없다"며 "이번 국회는 그렇게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관련, "이 정부의 중요한 사업이라서 예정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4대강 예산 고수 원칙을 밝힌 뒤 의원들의 민원성 사회간접자본 예산에 대해선 "다 깎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 명예수당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의원 지역구 콘크리트 예산을 깎은 뒤 이 돈으로 참전수당을 올려야 한다"며 "참전수당을 1만원 올리는데 2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2000억원이 들어가더라도 꼭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내년 의정비 동결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시의원들은 15일 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시 재정부담과 아직까지 침체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의원들은 지난해도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전국 평균(5338만원)에도 못 미치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4855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 6100만원, 부산 5728만원, 대구 5400만원, 인천 5951만원, 대전 5508만원, 울산 5538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자립고 기숙사 증축비 전액 삭감

광주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송원고와 숭덕고, 보문고 등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기숙사 증축비 67억5천600여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어 교육위와 예결위 심의안대로 ▲초등학생 안심 알리미 서비스(1억5천700만원) ▲광주공고 급식실 개축공사(6천300만원) ▲첨단고 교사 증축(1억원) ▲전남여상 체육준비탈의실(3천만원) ▲살레시오여고 교사재배치공사(23억5천만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다만 대성여고 급식소 예산은 23억9천300여만원, 전액 통과시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맴돌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KUKJE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A C 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말초혈행장해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 어깨·목결림, 수적저림·수족냉증

아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광고심의필 : 1056-0600